매일묵상
2022. 2월호

발 행 인 | 조 재 호
집필/편집 | 교역자실
진 행 | 성경묵상팀
고 척 교 회 | 서울시 구로구 중앙로 79
Tel. 02.2686.5871
www.gocheok.or.kr

고척교회

매일 묵상

2022.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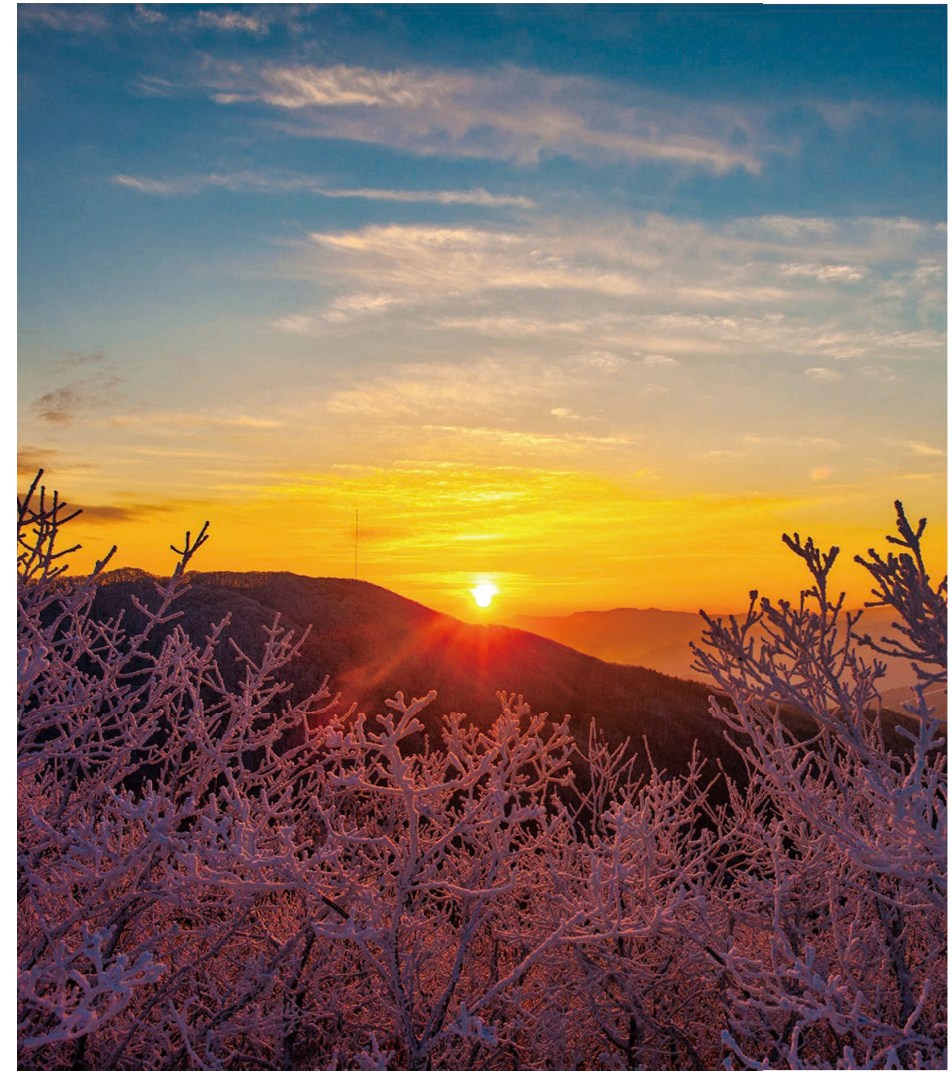


Photo | 이성도 집사(섬김-남성)

대한예수교장로회 고척교회

2022년

주제 성구

[신명기 16:11]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마가복음 1:15]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사도행전 2:47]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2월 그라티아 갤러리

[라르고]

최 준 희 작가
한국미술대전 수상 강남미술대전 수상
구로미술협회 회원

느리게 산다는 건 자칫 게으름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빛바랜 사진이나 숱한 기억의 상자 속 과거를 떠올리기 충분한 나만의 무장해제된 시간 속에서 이미지의 연결고리를 통해 자아를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유로운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화양연화가 될 것입니다. 코끝을 스치는 한겨울의 차가운 삭풍을 녹여줄 수 있는 따뜻한 마음과 살아 있음을 나눌 수 있는 이웃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 또한 행복입니다. 익숙함이 편안함이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지금 여기, 내 작은 일상을 작은 프레임에 담아 봅니다.

* 2월 카페 '그라티아'에는 최준희 작가의 그림을 전시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시 119:105-

매일 성경
매일 찬송
매일 기도
매일 감사

이 름	
소 속 (교구-목장/부서)	

2022년 표어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

(신 16:11, 막 1:15, 행 2:47)

2022 매일묵상 2월

신명기 19-34장, 여호수아 1-24장, 사무엘상 1-8장

목차

기도를 배우다 - 주님께 돌아갈 때까지 참된 안식은 없습니다 ····· 03

2·3월 달력 ····· 04

2월 [오늘의 말씀] ····· 06

매일묵상을 위한 드라마바이블 활용 ····· 07

매일묵상 '위드유' 가정예배 ····· 18, 34, 48, 64

여호수아 해설 ····· 28

사무엘상 해설 ····· 58

온 가족이 가볼만한 전시회 | 샤갈 특별전 ····· 68

성장하지 않는 믿음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 이벤트 | 윤미영 집사 ····· 70

한 해동안 가정예배를 드리며 | 배수호 학생 ····· 73

함께 세워가는 하나님 나라 디아코니아(1) | 예배부 ····· 76

선교지에서 온 편지 - 방글라데시 | 엄명희 파송선교사 ····· 78

교회소식 ····· 80

예배 안내

부록

- 가정예배 실천표
- 여리고 성으로 들어가자!
- 가정예배 암송구절 카드

그라티아 갤러리 | 최준희 작가의 '라르고'

대한예수교장로회 고척교회 GOCHEOK PRESBYTERIAN CHURCH

기도를 배우다

주님께 돌아갈 때까지 참된 안식은 없습니다

아우구스티투스 (Augustinus)

(354-430 신학자, 사상가)

4세기 북아프리카의 알제리와 이탈리아에서 활동한 신학자이자 성직자, 주교. 개신교와 로마 가톨릭교회 등 서방 기독교에서 교부로 존경받으며 구원에 대한 교리를 정리한 사도 바울에 버금가는 인물로도 평가된다. 신앙과 지식의 관계에 대해 '이해를 추구하는 신앙'(fides quaerens intellectum)이라는 입장을 취하였다. 펠라기우스의 선행구원론을 반대하여 하나님의 은총을 강조한 은총의 구원론을 남겨주었다. 그의 신학 사상은 마르틴 루터, 장 칼뱅의 종교개혁 사상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주님,
주님은 위대하시고 높이 찬양받으실 분입니다.
주님의 능력은 크고 그 지혜는 끝이 없습니다.
주님이 지으신 피조물 중 하나인 저희 인간은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는 어딜 가나 유한성을 지니고 살아갑니다.
그 유한성은 저희가 죄인이라는 증거이며
주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는 증거입니다.
하지만 저희 인간은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님을 찬양하지 않고는 살 수 없도록
주님이 저희 마음을 흔들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주님을 위해 저희를 지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 돌아가 쉬기까지
저희는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없습니다.

김영봉 엮음, [사귐의 기도를 위한 기도 선집], IVP 2004, 130.

2
2022
말씀의 달

오직 그 말씀이
네게 심히 가까워서
(신 30:14)

SUN	MON	TUE	WED	THU	FRI	SAT
		1 • 1.1 • 설날	2	3	4 • 입춘	5
6 • L-12/M-12 헌신예배 • 하이성품스쿨 "감사"(8주) 시작	7	8	9 • L-12/M-12 상반기 개강	10	11	12
13 • 교육주일 (장학헌금 작정)	14	15 • 1.15	16	17 • 청년공동체 1부 스프링 신앙수련회 (17-19)	18	19 • 우수
20 • 상반기 교사계속 교육 '두드림' 1차	21	22	23	24 • 청년공동체 2부 스프링 신앙수련회 (24-26)	25	26
27 • 상반기 교사계속 교육 '두드림' 2차	28					

TO DO LIST

- ☐
- ☐
- ☐
- ☐
- ☐
- ☐
- ☐
- ☐
- ☐
- ☐

3
2022
사랑의 달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요 13:1)

SUN	MON	TUE	WED	THU	FRI	SAT
		1 • 삼일절 • 월삭새벽기도회	2 • 재의 수요일 • 꿈샘문화교실 봄학기 개강	3 • 2.1 • 은빛시니어 1학기 개강	4	5 • 경칩 • 봄일체 심방 시작 • 마더와이즈 자유3기 개강(9주)
6 • 찬양아카데미 시작 • 어와나 1학기 개강	7	8	9 • 20대 대통령 선거	10	11	12
13 • 남선교회 주일 • 새봄 축복대성회 (13-15)	14	15	16	17 • 2.15 • 기도학교 개강	18	19
20 • 희망의 복지재단 헌신예배	21 • 춘분	22	23	24	25	26
27 • 이단대응 세미나	28	29	30	31		

TO DO LIST

- ☐
- ☐
- ☐
- ☐
- ☐
- ☐
- ☐
- ☐
- ☐
- ☐

2월 [오늘의 말씀]

1일	신명기 19-20장	16일	여호수아 10장
2일	신명기 21-22장	17일	여호수아 11-13장
3일	신명기 23-24장	18일	여호수아 14-15장
4일	신명기 25-27장	19일	여호수아 16-18장
5일	신명기 28장	20일	주 일
6일	주 일	21일	여호수아 19-20장
7일	신명기 29-30장	22일	여호수아 21장
8일	신명기 31장	23일	여호수아 22-23장
9일	신명기 32장	24일	여호수아 24장
10일	신명기 33-34장	25일	사무엘상 1-2장
11일	여호수아 1-3장	26일	사무엘상 3-5장
12일	여호수아 4-5장	27일	주 일
13일	주 일	28일	사무엘상 6-8장
14일	여호수아 6-7장		
15일	여호수아 8-9장		

매일묵상을 위한

드라마바이블 활용

1. '드라마바이블'이란?

드라마바이블은 오디오성경으로 100여 명의 다양한 방면에서 활약하고 있는 정상급 연예인과 국내 최고 작곡가들이 참여하여 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은 한인수 장로, 다윗과 모세는 이재룡과 장광 배우를 비롯하여 권오중(요엘), 양준모(이사야), 엄지원(에스더·룻), 예지원(마르다), 우희진(하와), 박시은(마리아), 최윤영(마리아) 등 크리스천 배우들도 재능을 기부했습니다. 또, 배우 윤유선과 아나운서 최윤영, CCM 가수 송정미 등이 시편을 낭독하는 등 총 100여 명의 크리스천 성우, 배우가 기꺼이 이 일에 동참했습니다. 배경음악도 최고 오케스트라의 연주와 드라마, 영화음악 감독들이 참여하여 현장의 생생함을 오디오로 접할 수 있습니다.

2. 드라마바이블 활용법

'드라마바이블'을 활용하면 생생하고 현장감 있게 성경말씀을 읽을 수 있습니다. [고척교회 홈페이지]와 [고척교회 앱]에서 [매일묵상-드라마바이블]을 클릭하면, ① **매일묵상 읽기본문에 따라서 드라마바이블을 들을 수 있고,** ② **2022년 성경을 일독할 수 있도록 읽기표와 '드라마바이블'을 편성해 놓았습니다.**

고척교회 홈페이지 ▷ **www.gocheok.or.kr**
고척교회 앱 다운로드: 앱스토어 또는 구글플레이(Google Play)에서 **'고척교회'**를 검색하여 다운로드하여 실행

화

2월

01

믿음이 승리합니다

* 오늘의 찬송: 찬송가 357장
* 오늘의 말씀: 신명기 19-20장

오늘의 말씀 | 신 19-20장

19장에서는 요단강 동쪽 지역의 세 도피성과 요단강 서쪽의 세 도피성에 대하여 언급합니다. 도피성은 원한이 없이 부지중에(4절) 사람을 죽게 한 사람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었습니다. 이어서 재판할 때의 증인을 한 사람으로 할 것이 아니라 두세 사람의 증언으로 할 것을 당부합니다. 이어지는 20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을 시작하기 직전과 그 과정을 통해서 해야 할 사항에 관한 규정을 언급합니다.

묵상할 본문 | 신 20:1-4

20장 1절에 핵심 주제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네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 가운데 우리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세력들과 영적싸움을 하면 할수록 여호와는 위대하시다는 사실만이 더욱 확연하게 드러날 뿐입니다. 눈에 보이는 적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Thanks Diary

삶의 적용과 물음

*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내 눈에 보이는 사람과 물질을 의지하여 실패해 본 경험이 있습니까? 서로 나누어 봅시다.

* 실패를 경험한 뒤에 다시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렸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일하여 주셨습니까?

오늘의 기도

1. 내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살게 하소서.
2. 수요오후 찬양팀 모두에게 찬양의 은사를 주시고 찬양의 가사가 삶의 신앙고백이 되게 하소서.
3. 고척교회가 복음을 전하고 지역사회를 돕고 어려운 자들과 함께하여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 되게 하소서.

수

2월

02

하나님의 질서

* 오늘의 찬송: 찬송가 449장
* 오늘의 말씀: 신명기 21-22장

오늘의 말씀 | 신 21-22장

21장 초반부는 죽인 자를 알지 못하는 살인이 일어났을 때 취해야 하는 행동들을 율법으로 규정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 더럽혀지지 않게 하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22장 처음은 이웃의 잃어버린 재산을 다시 찾도록 도와줄 것을 권면하는데 이는 이웃을 사랑하라는 레위기 19장 말씀과 이어져 있습니다. 이후 이어지는 내용은 순결에 관한 율법이 기록돼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성생활에서 순결을 지킴으로 그들의 거룩함을 지키게 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묵상할 본문 | 신 22:1-11

21장 말미에서 시작되어 22장 초반부까지 이어지는 기타 규정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질서를 지키고 생명을 존중하고 사랑하라는 율법이 기록돼 있습니다. 형제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못 본 체하지 말 것과 남녀의 의복을 반대로 입지 말 것, 짐승의 새끼라 할지라도 가볍게 여기지 말고 보호할 것을 당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과 법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세상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거룩하게 구별하신 것을 지키며 살아야 합니다.

Thanks Diary

삶의 적용과 물음

* 하나님의 창조세계를 보전하기 위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함께 나누어 봅시다.

* 옆집에 누가 살고 있는지도 모르는 현대사회입니다. 이러한 시대에 이웃을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방법으로 실천하고 있습니까?

오늘의 기도

1. 내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을 아끼며 살게 하소서.
2. 금요성령집회 찬양팀의 마음을 하나 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진정으로 찬양의 제사를 올리는 팀원들이 되게 하소서.
3. 설 연휴 기간을 보내고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는 발걸음을 보호해 주시고 일상생활 가운데에서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목

2월

03

하나님의 나라

* 오늘의 찬송: 찬송가 560장
* 오늘의 말씀: 신명기 23-24장

오늘의 말씀 | 신 23-24장

23장은 여호와의 총회에 관한 율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에서 예배드리기 위해 모이는 것을 기대하며 이 '여호와의 총회'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23장 15절에서 24절까지는 재산의 보호에 대한 다양한 율법이 언급됩니다. 이 부분에서 도둑질하지 말라는 율법이 많이 등장하는데 이는 여덟 번째 계명과 관련돼 있습니다.

묵상할 본문 | 신 24:19-22

곡식과 과일을 추수할 때 적은 양의 곡식과 과일을 남겨두어 가난한 사람들을 배려할 것을 권면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실 것'이라고 합니다. 특히 신명기에서는 객과 고아와 과부를 신원할 것을 곳곳에서 말하는데 이는 사회계층에서 가장 연약한 자들을 대표하기도 합니다. 물질에 매여 살기보다는 이웃을 돕고 그들을 위해 나누어 쓸 때가 복인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방법입니다.

Thanks Diary

삶의 적용과 물음

* 잠언의 말씀(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11:24)처럼 베풀었을 때 그 이상으로 하나님의 채우심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 목장모임을 하며 서로 음식을 나누기도 하고, 어려운 성도나 병상에 있는 환우들을 찾아갔던 일이 있습니까? 그때를 떠올리며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생각해 봅시다.

오늘의 기도

1. 서로 돕고 사랑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소서.
   행복사역부 각 팀의 사역이 하나님께는 영광을 올리고 교회공동체에는 기쁨을
2. 끼치게 하소서.
   한 달여 남은 대선기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나라와 국민을 사랑하는 일꾼을
3. 보내주소서.

금

2월

04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

* 오늘의 찬송: 찬송가 575장
* 오늘의 말씀: 신명기 25-27장

오늘의 말씀 | 신 25-27장

25장은 공의로운 재판과 죄의 중함에 따른 처벌에 대해, 그리고 아들이 없는 과부에 대한 배려를 말합니다. 그리고 공정한 저울, 즉 정직한 거래에 대한 율법을 말합니다. 26장은 처음 익은 열매를 바치는 절차와 모든 소산에 대한 십일조에 대해 말하고 바쳐진 십일조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줄 것을 말합니다. 27장에서 순종할 때 복을 주시며 불순종할 때 저주를 주신다는 모세의 세 번째 설교가 시작됩니다.

묵상할 본문 | 신 26:12-15

26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토지의 모든 소산의 첫 열매와 모든 소산의 십일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의 땅을 주셨고, 백성들은 그 땅에서 풍요로운 곡식과 산물을 얻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소산 중에서 첫 열매와 십일조를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받았고, 그 중에 일부를 떼어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수익 중에 일정 부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모든 것을 내게 허락하여 주신 감사의 표현이요, 내 삶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모든 것을 주시는 이도 하나님이요, 거두시는 이도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삶에서 실천하는 믿음 생활이 되기를 바랍니다.

Thanks Diary

삶의 적용과 물음

* 사람에게 베푸는 것을 즐기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대해서는 인색하거나 아까워할 때가 있습니까?

* 말씀에서는 모든 소산의 십일조라고 말하고 있는데, 우리 실생활 가운데에서는 어디까지를 소산이라고 정하여 하나님께 십일조를 드려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오늘의 기도

1. 하나님께 받은 것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정성껏 드릴 수 있는 믿음 생활이 되게 하소서.
2. 희망의복지재단이 지역사회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여 소외된 자들을 살피며 어려운 자들을 힘 있게 돕게 하소서.
3. 각 나라에 흩어져 있는 선교사님과 가정을 지켜주시고 사역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와 물질로 돕는 이들을 허락하소서.

토

2월

05

하나님만을 섬기라

* 오늘의 찬송: 찬송가 546장
* 오늘의 말씀: 신명기 28장

오늘의 말씀 | 신 28장

27장에서부터 이어지는 모세의 세 번째 설교입니다. 복과 저주를 주제로 하는데 그리심 산에서는 복을, 에발 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합니다. 28장 초반부에는 순종하여 받는 복을, 중반부터는 불순종하여 받는 저주에 대해 언급합니다. 중반부터 끝까지 이어지는 저주의 내용 속에는 이스라엘 백성의 고난과 타국의 포로가 될 것을 곳곳에서 암시하고 있습니다. 말미에서는 백성들이 만민 중에 흩어지리라는 것도 언급되며 암울한 이스라엘의 미래를 말합니다.

묵상할 본문 | 신 28:58-68

모세의 설교를 통해 이스라엘의 미래는 불확실하며 더 나아가 어두울 것이라는 점이 명확하게 보입니다. 하지만 58절을 살펴보면 "네가 만일 이 책에 기록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분열되고 강대국에 의해 침략을 받을 때 여러 선지자를 통해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늘 보았듯 하나님께서는 이미 약속의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순종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 복의 지름길입니다.

Thanks Diary

삶의 적용과 물음

*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고 약속하셨는데, 내 마음대로 행하여 하나님의 일을 그르친 적이 있습니까?

*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기까지는 수많은 고난이 따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감내할 수 있는 믿음이 있습니까? 고난 뒤에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까?

오늘의 기도

1.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과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인내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성취하는 믿음의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소서.
2. 고척어린이집과 재미난 방과후교실, 희망주야간보호센터를 출입하는 모든 이를 지켜주시고 삶의 평안을 허락하소서.
3. 다음 주 L-12, M-12 개강을 합니다. 목장이 활성화하고 서로를 위해 안부를 묻고 위로하며 격려하는 목장이 되게 하소서.

불쌍히 여기신 예수님

찬 양 찬송가 295장

말 씀 마태복음 14장 13-21절

나 누 기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많은 사람이 여러 고을로부터 왔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을 불쌍히 여겨 그중에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제자들은 이곳은 빈 들이고 날이 이미 저물어 먹을 것이 없으니 마을로 사람들을 보내 알아서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자고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오천 명이 배부르게 먹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으로 인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병들고, 배고프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긍휼을 베풀어주시는 분입니다. 그 은혜로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질 문 제자들이 무리를 마을로 보내려고 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무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기 도 자녀 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 어떤 상황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며 긍휼을 베풀어주시는 예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실 천 예수님의 마음으로 어려운 사람을 위해 기도와 후원을 하는 곳이 있다면 서로 얘기해보세요. 만약 없다면 한 주 동안 도울 수 있는 곳을 찾아서 긍휼의 마음을 품고 시작해보세요.

암 송 **마태복음 14:14**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2월 6일

주일 설교 NOTE

- 제목
- 본문
- 내용

- 적용 / 실천과제

- 기도제목

월
2월
07

생명의 복과 사망의 화

* 오늘의 찬송: 찬송가 202장
* 오늘의 말씀: 신명기 29-30장

오늘의 말씀 | 신 29-30장

모세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베푸신 구원의 역사를 회상함으로 세 번째 설교를 시작합니다. 모세는 이 언약 총회에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고 함으로써 언약에 참여하는 일이 본질적으로 개방됨을 알렸습니다. 또한, 배교하는 자들에 대한 저주도 선포합니다. 모세는 30장에서 복과 저주를 받는 길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의 길을 택함으로써 생명과 축복을 누리라고 간곡하게 호소합니다.

묵상할 본문 | 신 30:11-14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명의 복과 사망의 화, 두 가지의 길이 있다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어느 길을 택하는 것이 지혜로운 삶인가를 묻고 있습니다. 생명의 복과 사망의 화가 결정되는 기준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길로 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은 생명의 복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멀리하고 그분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사람에게는 사망의 화를 받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20절의 말씀처럼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며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이 진리를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반드시 전해야 합니다. 대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하게 살아갈 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Thanks Diary

삶의 적용과 물음

* 생명의 복과 사망의 화를 결정짓는 가장 큰 기준은 무엇입니까?

*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기 위해 내 삶 속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오늘의 기도

1.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만 의지하여 생명의 복을 누리는 삶이 되게 하소서.
2. L-12의 마을장, 리더, 헬퍼가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시고 협력하여 목장을 잘 세워가게 하소서.
3. 가정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하는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소서.

화

2월

08

하나님에 대한 쉬운 변절

* 오늘의 찬송: 찬송가 290장
* 오늘의 말씀: 신명기 31장

오늘의 말씀 | 신 31장

모세는 자신의 죽음이 임박했음을 느끼고 자신의 주변과 기타 모든 일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는 가나안 정복을 당부하면서 자신의 뒤를 이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갈 것을 말합니다. 또한 모세는 일곱 해마다 율법을 낭독할 것을 명령하는데, 모든 세대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당부했습니다. 모세는 자신의 사역을 마무리하면서 모든 율법을 책에 기록해 레위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언약궤에 보관하게 하고, 모세의 노래를 지어 백성들로 하여금 부르게 하는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묵상할 본문 | 신 31:14-19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스라엘의 비극적인 역사에 대해 예언하고 계십니다. 모세가 끊임없이 권면하고 당부했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차 가나안에 들어간 후 하나님을 배반하고 멸시하게 되고, 그 결과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경고하고 깨닫게 하기 위해 노래를 부르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입었음에도 배반하고 멸시하기 쉬운 존재인 것입니다. 그 죄를 깨닫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기도 합니다. 그런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은 심판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저버리고 변절하기 쉬운 우리는 늘 자신을 점검해야 합니다. 넘어지지 않게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당할 때는 우리의 잘못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바라며,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께 불평하지 말아야 합니다.

Thanks Diary

삶의 적용과 물음

*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의 노래를 부르게 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 주님을 향한 사랑을 변절하게 만드는 원인은 무엇입니까?

오늘의 기도

1.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올바른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소서.
2. M-12의 교역자와 모든 회원이 한마음이 되어 사랑으로 섬기는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3. 몸이 불편하여 병상에 있는 주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속히 회복되어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소서.

수

2월

09

가나안 입성을 막으시는 하나님

* 오늘의 찬송: 찬송가 456장
* 오늘의 말씀: 신명기 32장

오늘의 말씀 | 신 32장

32장은 모세의 노래라고 불리는 증거의 노래입니다. 하나님의 고귀한 품격과 그와 대조적인 이스라엘의 패역한 모습이 기록돼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배은망덕한 모습이 그려집니다. 이후 이스라엘의 배교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이스라엘의 회복, 이스라엘을 심판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된 열강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기록합니다. 모세는 최후의 교훈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순종은 생명이고, 불순종은 저주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묵상할 본문 | 신 32:48-52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느보 산에 올라가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가나안을 바라보도록 명하십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이 막으셨기 때문에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모세는 백성들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했습니다. 모든 열정을 다 쏟았지만, 정작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가나안 입성을 허락하시지 않았습니다. 바로 모세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두 가지 신앙의 교훈을 배울 수 있습니다.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한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앞길을 열어주지 않으시고 허락하시지 않는다면 자기 뜻대로 할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모세의 죄를 정확하게 언급하심처럼, 아무리 사소한 죄라도 용납지 않으시는 분임을 알게 됩니다. 막으면 열 자가 없는 하나님, 죄악을 용납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올바로 신앙하는 삶이 됩시다.

Thanks Diary

삶의 적용과 물음

* 하나님께서 오늘 모세의 가나안 입성을 막으셨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 내 인생에서 가나안 입성을 막으시는 사건이 있다면, 어떤 이유에서 막으셨다고 생각합니까?

오늘의 기도

1.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길을 여시는 분임을 기억하고 우리의 죄악을 회개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소서.
2. 남선교회연합회의 모든 사업을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모든 사역을 순종함으로 감당하게 하소서.
3. 성도들의 신앙 가운데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은혜를 허락하소서.

목

2월

10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 오늘의 찬송: 찬송가 370장
* 오늘의 말씀: 신명기 33-34장

오늘의 말씀 | 신 33-34장

모세는 이스라엘 열두 지파에게 유언적인 축복을 남깁니다. 출애굽 이후부터 시작하여 늘 함께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들에 대한 각기 다른 축복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한 축복의 기쁨과 그분의 유일성을 찬양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나안에 입성하지 못한 채 벳브올 맞은 편 모압 땅 골짜기에 장사됐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뒤를 이어 여호수아가 그 사명을 이어받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의 말에 순종했습니다.

묵상할 본문 | 신 33:29

모세는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 핵심에는 이 말씀이 기록돼 있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우리는 우리의 실상을 안다면 행복한 사람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첫째, 우리가 행복한 이유는 구원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죄를 사해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구원의 기쁨을 허락하셨습니다. 둘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이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항상 우리와 함께하신다는 사실은 큰 축복입니다. 셋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시기 때문입니다. 백성을 위해 친히 싸우시는 하나님께서 영광의 칼이 되셔서 삶 속에서 날마다 승리를 경험케 하십니다. 행복한 사람인 우리는 하나님께 마땅히 감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Thanks Diary

삶의 적용과 물음

* 우리가 살아가는 데 행복한 이유는 무엇이 있습니까?

*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행복은 무엇입니까?

오늘의 기도

1. 우리를 인도하셔서 구원과 승리의 기쁨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는 삶이 되게 하소서.
2. 여전도회 회원들이 서로 사랑하고 기도로 협력하여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히게 하소서.
3.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해있는 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소서.

여호수아 해설

1. 저자와 연대

여호수아가 통일성을 가지고 저술했지만, 이 책 전체를 저술했다고는 볼수 없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죽고 난 후에 발생한 사건들이 일부 기록돼 있기 때문입니다. 기록시기는 B.C. 약 1405년에서 1390년까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목적과 배경

열두 권의 역사서 중 첫 번째 책인 여호수아는 모세오경과 이스라엘의 남은 역사를 연결하는 고리 역할을 합니다. 대부분 땅을 정복하고 분배하는 내용이 주로 이루어져 있지만, 여호수아서에서 말하고 싶은 내용은 군사적인 힘이나 수적 우세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그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승리의 원동력임을 일깨워 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뜻인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라는 진리를 굳건히 붙들기 위함입니다.

3. 내용과 구조

1) 가나안 주요 거점 정복(1:1-12:24)

모세 이후 새 지도자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하여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의 장면에서 막을 엽니다. 전 민족이 하나로 뭉쳐 정치적·영적·군사적 준비를 마치고 이스라엘은 요단강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건너게 됩니다. 가나안 땅으로 진입한 이스라엘은 가나안 전국의 주요 거점을 정복합니다.

2) 12지파의 영토 분할(13:1-22:34)

정착 거점을 확보한 이스라엘은 함께하는 정복 사역을 뒤로하고 각 지파가 지역을 나누어 세부적으로 정복하는 사업을 펼쳐나갑니다. 하나님의 명령으로 일단 가나안 땅을 지파별로 나누었고, 갈렙과 레위 지파와 같이 특수한 경우의 땅 분배도 보도하고 있습니다.

3) 영구적 정착을 위한 권면과 여호수아의 죽음(23:1-24:33)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이 이제 정복하고 나눈 이 가나안 땅에서 영원히 평화롭게 정착하기 위한 조건을 언급합니다. 여호수아는 임종을 앞두고 유언과 같은 당부를 남깁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믿고 섬기면 그 땅에서 영원히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음을 권면하면서, 다른 신을 섬기면 모든 것을 잃게 됨을 경고합니다. 그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회고하면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금

2월

11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는 하나님

* 오늘의 찬송: 찬송가 405장
* 오늘의 말씀: 여호수아 1-3장

오늘의 말씀 | 수 1-3장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서게 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정복할 것과 율법을 지킬 것을 명령하셨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했습니다. 가나안 정복의 첫 번째인 여리고성 정복을 위해 여호수아는 여리고에 정탐꾼을 보냈고, 여리고 사람인 기생 라합의 도움으로 정탐꾼들은 무사히 돌아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을 위해 건너야 할 요단강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건너게 됩니다.

묵상할 본문 | 수 3:7-17

하나님께 요단강을 건너가라는 명령을 받은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요단 도하를 위한 구체적인 지시를 하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종노릇을 하다가 탈출해 홍해를 만날 때와 같은 모습입니다.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께서 요단강도 가르셔서 가나안 땅을 정복할 첫발을 내딛게 하셨습니다. 깊고도 넓어 보여 건너기 어려울 것만 같았던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에도 요단강 같은 어렵고 힘든 상황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사히 건너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 앞에 펼쳐진 요단강도 무사히 은혜로 건너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단강 앞에서 두려움과 염려함에 떨며 돌아가는 인생으로 만드시지 아니하고 요단강을 담대하게 건너게 하시는 큰 도움과 힘이 되십니다.

Thanks Diary

삶의 적용과 물음

*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 속에서 이스라엘이 보여준 신앙의 자세는 무엇입니까?

*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시는 섭리는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일어납니다.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사건이 있습니까?

오늘의 기도

1. 우리의 인생에서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날마다 그분 뜻 가운데 사는 삶이 되게 하소서.
2. 감사위원회 회원분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주어진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소서.
3. 지금도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환우들을 지켜주시고 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의 치료의 손길로 함께하소서.

토

2월

12

절대적인 믿음과 순종을 요구하신다

* 오늘의 찬송: 찬송가 452장
* 오늘의 말씀: 여호수아 4-5장

오늘의 말씀 | 수 4-5장

기적적인 방법으로 요단강을 건넌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요단강에서 열두 개의 돌을 취해 자신들의 유숙지인 길갈까지 운반하여 세웠습니다. 이는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다시 신앙을 세우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본격적인 전쟁 전에 이스라엘이 할례받기를 명하셨습니다. 자칫 적의 기습으로 위험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길 원하신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순종하고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묵상할 본문 | 수 5:2-9

오늘 본문은 길갈에 진을 친 백성들이 출애굽 후 처음으로 할례를 시행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할례 명령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이는 어떻게 보면 위험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 틈을 타 가나안 군사들이 선제적으로 공격한다면 이스라엘은 멸절을 당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믿음과 순종의 자세를 보여주었습니다. 그 결과 애굽의 수치, 곧 애굽의 종의 삶에서 벗어나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삶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절대적인 믿음과 순종의 자세를 요구하십니다.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신앙이 아니라, 절대적인 믿음과 순종의 신앙을 가진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Thanks Diary

삶의 적용과 물음

*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전쟁을 앞두고 할례받기를 결단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 내게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과 순종의 자세가 있습니까? 이러한 신앙의 자세를 유지하기 위한 삶의 훈련은 무엇입니까?

오늘의 기도

1. 우리의 마음을 다른 것에 두지 않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말씀에 순종할 것을 결단하는 삶이 되게 하소서.
2. 노회와 총회 사역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여 주시고 기도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소서.
3. 선교사님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불모지의 선교지가 영적 부흥의 열매가 가득 맺히는 복의 터전이 되게 하소서.

나를 건지소서

찬 양 찬송가 365장

말 씀 시편 70편 1-5절

나 누 기 고난 가운데서도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려운 형편과 간절한 필요를 하나님께 구하며 속히 도우시길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찾으며 기도로 나아가는 모든 자를 하나님은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십니다. 또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은혜 베푸시는 분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도우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어려운 상황이 전부가 아니라 그 가운데 함께 임하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찬양하게 됩니다. 고난이 기도의 제목이 되고, 기도에 응답하심으로 찬양하는 기쁨이 있게 될 것입니다.

질 문 오늘 말씀을 통해 알게 된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대하십니까?

기 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어려운 형편과 간절한 필요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갑니다. 도우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며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실 천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한 적은 언제였는지, 어떤 응답이나, 어떤 경험이 있었는지 서로 얘기해보세요.

암 송 **시편 70:5**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니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

2월 13일

주일 설교 NOTE

- 제목
- 본문
- 내용
- 적용 / 실천과제
- 기도제목

월
2월
14

온전히 바친 물건

* 오늘의 찬송: 찬송가 323장
* 오늘의 말씀: 여호수아 6-7장

오늘의 말씀 | 수 6-7장

6장에서 사실상 가나안 정복이 시작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독특한 방식으로 전투에 임합니다. 독특한 전투방식으로 전쟁에 임했다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렇게 여리고 성을 함락시킵니다. 7장에서 아이성 정복 실패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온전히 바친 물건에 손을 댄 아간의 범죄 때문입니다. 아간이 진멸 당한 후에야 여호와의 맹렬한 진노가 그치게 됩니다.

묵상할 본문 | 수 7:10-15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많은 소유를 허락하셨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 중에서 하나님께 받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자유와 소유를 인정하시지만, 어떤 것은 금지하실 때가 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온전히 바친 물건'이 그런 경우입니다. 이것은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평상시에는 전쟁에서 이긴 자에게 전리품은 당연한 권리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그것을 온전히 바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진정한 생명은 소유의 넉넉함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의지할 때 주어지는 것입니다. 정복 전쟁의 시작에서 이 사실을 공동체 마음에 새기는 일은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Thanks Diary

삶의 적용과 물음

* 최근 있었던 일 중에서 진심으로 행했던 일은 무엇입니까?

*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모든 것을 바치라는 마음을 주신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오늘의 기도

1. 우리가 십자가의 예수님을 따라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을 따라가는 자가 되게 하소서.
2. 한국 교회가 모든 것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순종하며 주님의 몸 된 교회가 되게 하소서.
3. 하나님만을 온전히 예배하는 고척교회가 되게 하소서.

화

2월

15

여호와의 소문을 듣고

* 오늘의 찬송: 찬송가 347장
* 오늘의 말씀: 여호수아 8-9장

오늘의 말씀 | 수 8-9장

8장에는 하나님과 백성의 문제가 해결된 이후에 아이성을 정복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후에 여호수아가 제단을 쌓고 율법을 선포합니다. 9장에서는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소문을 듣고 두려워하여, 자신의 신분을 속이고 이스라엘 사람들과 조약을 맺는 내용이 나옵니다.

묵상할 본문 | 수 9:3-15

하나님과 백성의 문제가 해결된 다음에 이스라엘은 승승장구합니다. 여리고성을 함락시키고, 아이성을 함락시킵니다. 이 소문은 주변 민족들에게도 전해졌고, 이스라엘과 맞서 싸우기 위해 연대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됩니다(9:2). 그러나 기브온 주민들은 꾀를 내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속이면서까지 조약을 체결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이 조약은 강한 자가 약한 자와 맺는 수호 관계의 근거가 됩니다. 결국 그들은 이스라엘과 조약을 체결합니다. 기브온 주민은 하나님에 대한 소문과 애굽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한 것입니다.

Thanks Diary

삶의 적용과 물음

* 최근 들었던 소식 중에 가장 마음을 두렵게 했던 이야기가 있습니까?

* 누군가를 통해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하나님이 생생하게 느껴졌던 경험이 있습니까?

오늘의 기도

1. 날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며 살아가게 하소서.
2. 우리의 지역과 한국 사회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하나님의 일을 목도함으로써,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더해지게 하소서.
3. 고척교회 모든 성도의 삶 속에 날마다 하나님의 구원역사가 가득하게 하소서.

수

2월

16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

* 오늘의 찬송: 찬송가 352장
* 오늘의 말씀: 여호수아 10장

오늘의 말씀 | 수 10장

10장에서는 가나안 북쪽 지역인 기브온 지역의 전투와 남부 가나안 전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들이 정복한 지역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야 했습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으며, 그 땅의 우상 숭배의 유혹을 받지 않기 위한 조치이기도 했습니다.

묵상할 본문 | 수 10:40-43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것은 오래된 언약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여호수아 1장에서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 정복 전쟁의 시작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입니다. 중간과정에서 인간의 불순종이나, 연약함으로 인해 틀어지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명령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광야에서 40년간 방황했던 시기가 있었지만 결국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됐으며, 아이성에서의 뼈아픈 패배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시 승리하게 하셨고, 가나안 북부지역의 전투와 남부지역의 정복 전투를 완료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Thanks Diary

삶의 적용과 물음

*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따르기 어려웠던 지시나 명령이 있었습니까?

*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 어떤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습니까?

오늘의 기도

1.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소서.
2.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북한과 세계 열방을 향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3. 한국 교회가 다른 어떤 것보다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게 하소서.

목

2월

17

은혜가 없는 곳

* 오늘의 찬송: 찬송가 350장
* 오늘의 말씀: 여호수아 11-13장

오늘의 말씀 | 수 11-13장

11장에서는 메롬 전투의 승리와 북부 가나안의 정복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전쟁이 그치게 됩니다. 12장에서는 정복당한 왕들의 명단을 정리해 주고 있습니다. 13장에서는 정복한 땅들을 분배하는 내용이 기록돼 있습니다. 땅 분배는 요단 동쪽 땅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묵상할 본문 | 수 11:16-20

11장에 이르러 정복 전쟁은 마무리됩니다. 장기간에 걸친 정복 전쟁은 꽤 치열했습니다. 이스라엘을 속여서 화친을 맺은 기브온 주민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이스라엘과 대항했습니다.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그들은 그 땅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항전하는 것이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싸운 이유를 그들의 마음이 완악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고 합니다. 그들에게는 은혜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여호와를 대적했으며, 그들이 적당히 이스라엘과 화합했을 때, 이스라엘도 여호와를 멀리하고 대적할 수 있는 유혹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그 땅에서 진멸 당한 이유입니다.

Thanks Diary

삶의 적용과 물음

* 인생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싸움은 언제였으며,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정복 전쟁을 할 때 왜 그 지역들을 온전히 진멸하셨습니까?

오늘의 기도

1. 하나님의 뜻을 따라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소서.
2. 위임목사님이 늘 영육 간에 강건하실 수 있도록 함께하소서.
3. 지역사회가 무엇보다도 정의와 공의를 행하고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믿음의 사람들을 사용하소서.

금

2월

18

여호와를 온전히 좇은 사람

* 오늘의 찬송: 찬송가 449장
* 오늘의 말씀: 여호수아 14-15장

오늘의 말씀 | 수 14-15장

14장에서는 요단 서쪽에 땅 분배가 시작됩니다. 땅 분배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나누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15장은 유다 자손에게 땅 분배가 이루어지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기업으로 얻은 성읍들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묵상할 본문 | 수 14:6-15

요단 서쪽에 땅 분배를 시작하면서 갈렙의 충성을 크게 강조합니다. 그에게는 모세가 정탐을 보낼 때부터 하나님을 향한 강한 믿음이 있었고, 오랜 전쟁의 기간 그 믿음은 더욱 강하게 됐습니다.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라는 신앙의 고백은 그의 진실한 고백이었습니다. 성경에서도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좇았다"라고 증언합니다(14:14). 갈렙의 이야기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에 대해서 다시금 깨우쳐 줍니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를 좇은 사람으로서 이후 모든 세대의 좋은 모범이 됐습니다.

Thanks Diary

삶의 적용과 물음

* 살아오면서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 있다면 누구입니까?

* 갈렙은 어떻게 여호와를 온전히 좇을 수 있었을까요?

오늘의 기도

1. 우리가 여호와를 온전히 좇아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 하나님을 나타내는 자들이 되게 하소서.
2. 고척교회 모든 교역자가 오직 여호와를 좇음으로 믿음의 본이 되게 하소서.
3. 한국 교회가 오직 여호와를 좇아 살아가는 것을 우선순위로 삼고, 온전한 예배를 회복하게 하소서.

토

2월

19

스스로 개척하라

* 오늘의 찬송: 찬송가 370장
* 오늘의 말씀: 여호수아 16-18장

오늘의 말씀 | 수 16-18장

16장에서는 요셉 지파의 땅 분배를 시작합니다. 17장에는 요셉 지파의 땅을 그의 자손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나눠 가지는 내용이 나옵니다. 18장에는 남은 일곱 지파의 땅 분배가 기록돼 있고, 그중에서 베냐민 지파가 먼저 땅을 배정받게 됩니다.

묵상할 본문 | 수 17:14-18

열두 지파는 야곱의 열두 아들의 자손입니다. 그런데 땅 분배에서 레위 지파는 하나님께 드려진 지파로 따로 땅을 받지 않습니다. 그 한 자리를 요셉 지파의 두 아들 지파가 나눠 갖게 됩니다.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그런데 요셉 지파에게 땅이 한 분깃만 배정되자, 불만이 제기됩니다. 지파가 커져서 더 많은 땅이 필요하다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이미 분배해야 할 땅은 한정적인 상황입니다. 여호수아는 큰 민족이 되어 땅이 좁아진 요셉 지파에게 지침을 줍니다. 삼림 지역을 스스로 개척하라는 것입니다(17:15). 한계 지점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스스로 개척해야 할 때가 있음을 알 수 있는 말씀입니다.

Thanks Diary

삶의 적용과 물음

* 한계 상황에 놓이게 될 때가 있습니까? 그럴 때 어떻게 행동합니까?

* 여호수아가 요셉의 자손 두 지파를 향해 스스로 개척하라는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오늘의 기도

1. 우리가 한계 상황에 놓일지라도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개척해 나가는 믿음을 갖게 하소서.
2. 수고하고 애쓰신 은퇴항존직을 축복해 주시고, 은퇴 이후의 삶에서도 가능한 하나님의 사역을 계속 이어가게 하소서.
3. 우리 지역사회가 겪고 있는 가정의 위기와 경제적인 문제를 교회가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과 함께 극복해 나가게 하소서.

지켜야 할 것

찬 양 찬송가 342장

말 씀 신명기 23장 24-25절

나 누 기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가서 마음대로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릇에는 담지 말아야 합니다. 이웃의 곡식 밭도 마찬가지입니다. 들어가 이삭을 따먹어도 됩니다. 그러나 낫을 대지는 말아야 합니다. 맛을 볼 수 있고 배불리 먹을 순 있지만, 가져갈 순 없습니다.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수준, 이웃이 용납할 수 있는 수준이 있습니다. 이해해줄 수 있는 수준과 값을 지불해야 하는 수준이 있는데, 내 마음대로 '그럴 수 있지' 하면서 웃어넘길 수 없습니다. 서로 지켜야 할 것을 지킬 때 함께 살 수 있습니다. 내 것이 아니라고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선을 지킬 때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룰 수 있습니다.

질 문 이웃의 것을 그릇에 담지 말고, 낫을 대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살기를 원하실까요?

기 도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서로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을 소중히 여기며 함부로 대하지 않게 해주세요. 아껴주고 존중하며 내 것처럼 대하는 마음을 갖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실 천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가족이 함부로 한 것은 있지 않은지 서로 이야기해 보세요. 사과할 일이 있으면 사과하고 서로의 것을 소중히 여기기로 다짐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암 송 **신명기 23:24** 네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는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되느니라 그러나 그릇에는 담지 말 것이요

2월 20일

주일 설교 NOTE

- 제목
- 본문
- 내용
- 적용 / 실천과제
- 기도제목

월
2월
21

참 지도자, 참 리더

* 오늘의 찬송: 찬송가 323장
* 오늘의 말씀: 여호수아 19-20장

오늘의 말씀 | 수 19-20장

이스라엘은 지파별로 땅을 분배받게 됐고 그 과정이 본문에 나타납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정탐꾼 중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약속의 땅에 들어갈 것이라는 약속을 받았으며 그들에게는 약속의 땅에서 유업이 주어졌습니다. 땅 분배를 시작하자 갈렙은 옛 일을 상기시키며 자신 몫의 땅을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자 여호수아는 망설임 없이 축복하고 헤브론 땅을 그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계선을 따라 땅 나누기를 다 마친 뒤 자기들의 땅에서 얼마를 떼어 준 땅을 몫으로 받았습니다. 여호수아가 받게 된 땅은 에브라임 산간 지방에 있는 딤낫세라였으며 그는 거기에 성읍을 세우고 그곳에서 살았습니다. 여호수아가 받은 딤낫세라는 에브라임 지파의 중앙 산지에 있는 땅이었으며 딤낫세라는 세겜에서 남서쪽으로 15km정도 떨어진 곳으로 오늘날의 '키르베트 티브나'라는 지명으로 불리는 곳입니다.

묵상할 본문 | 수 19:49-51

가나안 땅 정복과 분배의 일등공신은 누구보다도 여호수아입니다. 이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런 여호수아는 자신의 몫을 먼저 챙기지 않고 가장 나중에 받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우리는 참 지도자, 참 리더의 모습을 엿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받은 땅은 이미 살기 좋게 다 갖추어진 성읍도 아니었고 거친 산간 지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성읍을 세워야 했습니다. 지도자로서 얼마든지 먼저 좋은 땅을 요구할 수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호수아가 좋은 땅을 가져간다 해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했을 것인데, 여호수아는 백성들이 빠짐없이 다 분배받은 후에 비로소 자신의 몫을 챙깁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배려하는, 물욕에 좌우되지 않는 참 지도자, 참 리더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Thanks Diary

삶의 적용과 물음

* 도피성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스라엘 사회 안에서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 여호수아는 땅을 분배받는 과정에서 가장 나중에 선택하기를 자처했고 좋지 않은 땅을 선택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통해 느끼는 바를 함께 나누어 봅시다.

* 그리스도인에게 있어 배려란 무엇입니까? 가정 안에서 서로 양보하고 배려할 수 있는 점을 나누어 보고 한 가지씩 정해서 실천해 봅시다.

오늘의 기도

1.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름받은 우리 교회공동체가 여호수아와 같이 서로 양보하고 배려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2. 당회와 안수집사회, 권사회 시무항존직분자들에게 건강과 형통함을 허락하셔서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 되어 교회의 든든한 버팀목으로 세워지게 하소서.
3. 대한민국을 축복하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도자가 세워지게 하시고 분열과 분쟁이 사라지게 하소서.

화

2월

22

신실하신 하나님

* 오늘의 찬송: 찬송가 301장
* 오늘의 말씀: 여호수아 21장

오늘의 말씀 | 수 21장

여호수아 21장에서는 레위인들에게 줘야 할 성읍을 이야기합니다. 백성들이 단지 자선이나 도움의 의미로 성읍을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것 중 일부를 하나님의 일을 하는 레위인들에게 줌으로써 하나님께 돌려드린 일이 기록돼 있습니다. 레위인들은 이들로부터 받은 성읍에 자급자족하며 살아가며 하나님을 섬기고 실수로 사람을 죽여 복수를 당할 위협에 처한 살인자를 받아들여 그들을 보호하고 믿음을 심어주고 삶의 희망과 용기를 부어주는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출애굽에서부터 가나안 정복까지의 이야기는 45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들에게 말씀하신 선한 일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라는 은혜의 말씀으로 마치게 됩니다.

묵상할 본문 | 수 21:43-45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실 때 땅과 후손에 대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중 후손에 대한 약속은 출애굽 당시에 성취됐고(출 12:37, "보행하는 장정이 육십만 가량"), 땅에 대한 약속은 45절에 이르러 최종적으로 성취됐습니다. 그래서 약속과 성취라는 맥락에서 학문적으로는 모세오경에 여호수아서를 더해 '육경'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전쟁하며 노력한 측면은 분명히 있지만, 궁극적으로 모든 백성이 한 사람도 남지 않고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처럼 소원하던 자기 터전을 갖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취는 하나님의 은혜의 산물임을 우리는 잊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합니다.

Thanks Diary

삶의 적용과 물음

* 우리는 하나님 은혜의 선물로 받은 것 중 일부를 아낌없이 하나님께 감사로 돌려드리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나누어 봅시다.

* 레위인들은 다른 사람들처럼 많은 소유가 주어지진 않았지만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몫에 만족하고 감사하며 부지런히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어떤 마음가짐이 필요한지 함께 나누어 봅시다.

* 여호수아 21장 45절 말씀을 다 함께 한 번 더 읽어보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응답해주신 기도제목과 주신 은혜를 서로 이야기해 봅시다.

오늘의 기도

1. 모든 성도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고 약속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소서.
2. 사무실 직원들이 지치지 않도록 돌봐 주시고 교역실과 각 기관과 부서를 잘 돕도록 은혜와 지혜를 더하여 주사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하게 하소서.
3. 나라의 정치와 경제가 온전히 회복되게 하시고 세계 열방의 선교지와 선교사님들이 코로나19를 온전히 이겨낼 힘을 주소서.

수

2월

23

약속의 성취, 순종과 섬김

* 오늘의 찬송: 찬송가 382장
* 오늘의 말씀: 여호수아 22-23장

오늘의 말씀 | 수 22-23장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땅과 안식을 주신 후 22장에서 여호수아는 먼저 요단 동편의 지파들을 그들의 소유지로 보내면서 당부의 말을 전합니다. 이어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리더들에게 여호와를 섬기도록 23장에서 당부합니다. 결론적으로 여호수아 22-23장은 요단 동편의 지파들을 포함한 모든 이스라엘에게 그들이 거하는 땅과 관련해 언약적 순종을 촉구하는 여호수아서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모두 성취됐기 때문에 이제 남은 것은 하나님에 대한 백성들의 순종과 섬김이라고 여호수아는 권면하고 있습니다.

묵상할 본문 | 수 23:1-16

이스라엘의 정체성이나 하나 됨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계신다는 것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심을 그들이 고백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권면의 말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대한 반응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순종을 강조합니다. 여호수아는 이후에도 이방의 적을 쫓아내는 정복의 과정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실 것을 약속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성취를 위해 싸우실 것이지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남아 있는 민족들을 정복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땅에 남아 있는 이방 민족들을 쫓아내지 않으실 것이며 도리어 이스라엘이 멸망할 것이라고 경고하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위대한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것입니다.

Thanks Diary

삶의 적용과 물음

* 하나님의 가족인 그리스도인 공동체, 곧 교회의 하나 됨과 연합을 더욱 굳게 세워가는 길은 어디에 있을지 22장의 말씀을 묵상하며 생각해 봅시다.

*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바를 성취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약속은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이루어진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면 함께 나누어 봅시다.

* 앞으로 우리 가정에 주실 하나님의 약속을 기대하며 그에 앞서 우리의 섬김과 순종을 서로 나누며 점검해 봅시다.

오늘의 기도

1.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것이 성취될 것을 신뢰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신 하나님을 위한 섬김과 순종에 힘쓰는 모든 성도가 되게 하소서.
2. 영아부의 사역 가운데 은혜 주시고 부모와 교사, 교역자 모두가 한마음으로 영아 신앙교육에 최선을 다함으로 아기들의 신앙이 자라게 하소서.
3. 우리나라를 긍휼히 여기사 평화와 사랑, 진리와 공의가 가득한 나라가 되게 하소서.

목

2월

24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라

* 오늘의 찬송: 찬송가 430장
* 오늘의 말씀: 여호수아 24장

오늘의 말씀 | 수 24장

24장에서 여호수아는 모든 백성을 위한 권면을 이어갑니다. 여호수아는 앞선 이야기들과 비슷한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하신 일을 뒤돌아보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떠나 배교하지 않도록 권면합니다. 특히 앞선 22-23장과 달리 24장에서 여호수아의 권면은 좀 더 조직적으로 하나님의 신실하신 과거의 행적을 언급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백성들이 떠올리며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도록 촉구합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 말합니다. 조상들이 애굽에서 섬기던 이방 신이나 가나안 아모리인의 신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섬기도록 요구합니다.

묵상할 본문 | 수 24:1-24

여호수아는 데라와 아브라함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과 함께하신 역사를 간추려서 되풀이해 이야기합니다. 또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마지막으로 무엇이 옳다고 생각하며 믿는지를 묻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러한 역사 속에서 그들과 함께해오신 하나님을 예배할 것인지 아니면 언급되지 않은 다른 이방 신들을 섬길 것인지에 대한 물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의 말을 따르기로 결단하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라고 응답하며 언약을 맺습니다.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언약 맺는 장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순종하기로 다짐하며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사실을 떠올리게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된 우리 또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Thanks Diary

삶의 적용과 물음

*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베푸신 은혜의 역사를 여호수아의 권면의 말 속에서 찾아보고 묵상해 봅시다.

*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주신 은혜의 역사를 받아들였을 때 어떻게 반응했는지 살펴보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묵상해 봅시다.

*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거룩한 결단과 삶이 전제돼야 함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결단이 있는지 돌아보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섬기는 삶에 대한 결단을 되새겨 봅시다.

오늘의 기도

1. 이스라엘의 역사와 함께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우리에게도 은혜 베풀어주신 하나님만을 섬기며 나아가겠노라 결단하는 모든 성도 되게 하소서.
2. 유아부 교사들과 교역자들이 한마음과 한뜻으로 연합하여 행복한 교회학교 사역을 하게 하시고, 유아부 아동들이 날마다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하소서.
3.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되어 우리나라와 온 세계가 평안을 되찾게 하소서.

사무엘상 해설

1. 특징

수천 년 동안 사무엘, 사울, 다윗과 요나단의 이야기는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듣는 이와 읽는 이의 마음을 사로잡으며 정신적, 신앙적 상상력을 자극하고 영적 교훈의 자양분을 제공해 왔습니다. 이들의 이야기가 담겨 있는 사무엘서는 히브리 성경 이야기의 정수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뛰어난 문학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사무엘서를 보면 등장인물의 묘사, 이야기의 전개, 배경과 대화, 인간의 욕망과 하나님의 섭리의 어우러짐이 절묘하게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이자 이야기로 된 설교요, 신학입니다. 이 이야기는 약 3000년 전의 이야기이지만, 늘 새롭게 읽고, 그 진리 가운데 살며, 언제라도 다른 사람들에게 들려줘야 할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2. 사무엘상의 저자와 배경

사무엘서는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사사 시대 말기로부터 다윗 왕까지의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사무엘상은 선지자 사무엘의 출생부터 (주전 약 1100년)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의 죽음까지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무엘서는 성경 가운데 대표적인 역사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역사책의 저자에 대해서는 우리가 확실하게 아는 바가 없지만, 역대상(29:29)에서 "다윗 왕의 시종 행적이 선견자 사무엘의 글과 선지자 나단의 글과 선견자 갓의 글에 다 기록되고"라는 구절을 통해 유추해 보면 사무엘도 저자 중의 한 사람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책의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칭한 것은 그가 이 책의 저자이거나 아니면 적어도 이 책의 전반부에서 사무엘이 주인공 역할을 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사사기의 사사들은 모든 면에 있어서 불완전한 지도자임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영적인 면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연합하여 이끌어 가는 데에는 역량이 부족했고, 도덕적으로도 흠이 많아 하나님의 백성들을 올바르게 이끄는 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사들의 이러한 불완전성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는 이들의 역사에 직접 관여하셔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친히 다스리셨습니다.

당시 역사적인 상황을 살펴보면, 사사 시대의 이스라엘은 왕정을 갖춘 이웃 나라들에게 지속적으로 압제당하고 억눌림을 당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왕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계속해서 왕을 갈구했습니다. 사사들의 지도력으로는 외적에게서 이스라엘의 영토를 안전하게 보존할 수도 없을 뿐 아니라 이스라엘 안에 잠재한 분파적이고 지역주의적인 갈등이나 도덕적, 종교적, 정치적 혼란을 극복할 수 없었습니다. 사무엘상은 이렇게 새로운 형태의 지도력이 요구되는 시대를 다루고 있습니다.

3. 내용과 구조 - 시대에 따른 연대기적 구조 분석

시대에 따른 연대기적 구조 분석은 사무엘서를 사무엘, 사울 그리고 다윗의 통치 시대로 구분합니다. 사무엘 시대(삼상 1-12장), 사울 시대(삼상 13-31장), 다윗 시대(삼하 1-24장)의 구분은 사울의 등극, 죽음의 기록과 일치하며 사무엘서를 자연스럽게 나눕니다. 이에 기초해 사무엘상을 시대적으로 분석하면 아래와 같은 구조로 드러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 시대(1-12장)
사무엘의 탄생과 소명(1-3장)
엘리 시대의 종말(4-6장)
사무엘 시대의 언약 갱신과 승리(7장)
왕정의 시작과 사울의 즉위(8-12장)

사울 시대(13-31장)
사울의 통치(13-15장)
다윗의 흥기(16-31장)

금

2월

25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

* 오늘의 찬송: 찬송가 337장
* 오늘의 말씀: 사무엘상 1-2장

오늘의 말씀 | 삼상 1-2장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 왕을 세우는 일을 위해 사무엘을 선택하셨습니다. 사무엘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과 그의 백성을 위해 헌신했습니다. 사무엘상 1-2장은 사무엘의 출생을 언급하며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의 신앙와 기도에 대해서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의 아버지 엘가나는 레위 지파 고핫 계열에 속했으며 엘르아살의 후손이었습니다. 엘가나는 매우 경건한 사람으로 해마다 여호와께 제사드리기 위해 가족을 데리고 실로에 올라가며 가장으로써 가족의 신앙을 이끌었습니다. 이렇게 경건한 부모 밑에서 어머니 한나의 간절한 기도로 태어난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었습니다.

묵상할 본문 | 삼상 1:1-8

엘가나에게는 두 아내가 있었습니다. 첫째 부인은 한나였고, 둘째 부인은 브닌나였습니다. 엘가나는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하자 자식을 얻기 위해 브닌나를 후처로 맞이했는데 브닌나는 욕심이 많고 질투심이 강한 여인이었습니다. 브닌나는 그당시 여인들에게 있어 가장 중요했던 자녀를 가졌지만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엘가나가 자신보다 한나를 더욱 사랑했기 때문입니다(삼상 1:5,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브닌나는 한나에게는 없는 귀중한 자식을 가졌음에도 남편의 사랑이 자신이 아닌 한나에게 있음을 알고 한나를 괴롭혔습니다. 한나는 그 모든 슬픔을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갔고, 그 결과 한나는 구약성경 중 성전에 올라가 기도한 유일한 여인으로, 여호와께 서원하고 또 그 서원을 실천한 여인으로 성경에 기록됐습니다.

Thanks Diary

삶의 적용과 물음

*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에 만족하지 못하고 나에게 없는 것들을 바라보며 집착했던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자세를 묵상해 봅시다.

* 브닌나의 끊임없는 괴롭힘에 한나는 어떻게 대응했습니까? 한나의 대응에 대한 생각을 서로 나누며 나라면 어떻게 했을지 생각해 봅시다.

* 한나가 하나님께 드린 기도(삼상 2:1-11)을 읽고 그 기도의 특징은 무엇인지 생각해봅시다.

오늘의 기도

1.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에 만족하며 감사하게 하시고, 욕심과 탐욕을 멀리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소서.
2. 유치부 교사와 교역자, 학부모, 아이들 모두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맡겨주신 아이들을 말씀으로 바르게 양육할 수 있게 하소서.
3. 핍박 가운데서도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는 북한의 성도들을 보호하시고, 신앙의 자유가 보장되는 평화로운 통일 대한민국을 이루어 나가도록 인도하소서.

토

2월

26

영적 무감각을 경계하라

* 오늘의 찬송: 찬송가 428장
* 오늘의 말씀: 사무엘상 3-5장

오늘의 말씀 | 삼상 3-5장

당시 제사는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게 되는 도구이며 하나님과 인간이 교제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였습니다. 그런데 엘리는 영적으로 무감각했으며 엘리의 아들들 홉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께 바쳐야 할 것을 가져가는 등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을 멸시합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통로를 막아버린 아들들의 큰 죄악을 엘리는 알고 있었지만 그는 하나님보다 아들들을 더 사랑했습니다. 이러한 엘리의 영적인 무감각은 하나님의 뜻이 더 이상 그에게 임하지 않는 결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 엘리를 제쳐두고 어린 사무엘에게 말씀을 주신 것은 영적으로 너무나 어두워진 엘리의 현재 상황을 극명하게 드러냅니다. 이후 이스라엘은 블레셋에 언약궤를 빼앗기고 엘리와 두 아들 또한 죽게 됩니다.

묵상할 본문 | 삼상 4:1-10

사사 시대의 전쟁은 '거룩한 전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존재하는 전쟁의 현장에서 사사들은 용사가 돼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사사들은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용사가 됐습니다. 그러나 엘리 시대의 이스라엘에게는 그러한 신앙이나 경건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엘리가 사사로 있는 동안 벌어진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도우심이나 인도하심을 바라는 어떠한 신앙 고백이나 간구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은 전쟁의 패배 원인을 하나님께로 돌렸으며 당시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었던 사무엘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이 언약궤를 가져온 것은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기 위함이 아니라 '전쟁의 수호신' 정도로 간주하여 승리의 담보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수호신 정도로 격하시키는 죄를 범한 그들은 결국 블레셋에게 언약궤를 빼앗기게 됩니다.

Thanks Diary

삶의 적용과 물음

* 제사장 엘리의 영적인 무감각과 영적으로 어두워진 모습을 보며 어떤 생각이 듭니까? 하나님께 영적으로 민감하게 반응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이 필요합니까?

*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전쟁에 나섰음에도 패배하고 언약궤마저 빼앗겼던 이유는 무엇인지 묵상해 봅시다.

* 이스라엘의 패배는 결코 하나님께서 다른 민족의 신보다 약하다는 것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5장의 말씀을 읽으며 변함없는 하나님의 승리를 묵상해 봅시다.

오늘의 기도

1. 모든 성도가 끊임없는 말씀 묵상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소서.
2. 유년부 아동들의 신앙 성장을 위해 헌신하는 교역자와 교사들을 축복하시고, 유년부의 모든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도록 인도하소서.
3. 코로나19로 위축된 선교의 현장과 선교사역이 회복되게 하시고, 선교사님들에게 성령의 권능을 허락해 주소서.

빛의 자녀

찬 양 찬송가 502장

말 씀 에베소서 5장 1-14절

나 누 기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자기 자신을 버리셨습니다.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을 멀리 하고 우리의 입은 감사가 가득해야 합니다. 악한 자와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딸들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하고 이루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전에는 어둠이었지만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주 안에서 빛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크신 사랑을 깊이 알수록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며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가 될 것입니다.

질 문 우리를 위해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빛의 자녀들처럼 살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기 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날 위해 자신을 버리고, 날 대신해 희생제물로 드려진 예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만 바라보며 주 안에서 빛의 자녀로 살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실 천 한 주 동안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받은 감사의 제목이 무엇인지 서로 돌아가면서 이야기해 보세요.

암 송 **에베소서 5:8**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2월 27일

주일 설교 NOTE

- 제목
- 본문
- 내용
- 적용 / 실천과제
- 기도제목

월

2월

28

왕을 주소서

* 오늘의 찬송: 찬송가 288장
* 오늘의 말씀: 사무엘상 6-8장

오늘의 말씀 | 삼상 6-8장

6장에서 블레셋 사람들은 여호와의 궤로 인해 재앙이 내린 것으로 생각하고 멍에를 매어보지 않은 소 두 마리가 끄는 수레에 궤를 넣고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보냈습니다. 7장에서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심으로 여호와만을 섬기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지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린 후 블레셋과 전투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사무엘은 돌을 취해 여기까지 도우신 '에벤에셀'의 하나님을 기억하게 했습니다. 8장에서 백성들은 사무엘에게 다른 나라들과 같이 왕을 세워 다스리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을 버렸다면서, 왕으로 인해 부르짖어도 응답하지 않을 것이라 하셨습니다.

묵상할 본문 | 삼상 8:4-9

혼란했던 사사 시대를 종결시키고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끌었던 사무엘이었지만 그 아들들은 아버지의 뒤를 따르지 않고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은 늙었고 아들들은 사무엘처럼 바르게 행하지 않으니,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해달라고 사무엘에게 요청했습니다. 백성들의 요구를 사무엘은 기뻐하지 않았고 하나님도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통치가 아닌 다른 나라들과 같은 세상 왕이 어떻게 다스릴 것인지 말했지만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나라와 같은 왕의 제도로 인해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는 경고에도 백성들은 전쟁에서 앞장서서 싸울 왕을 원했습니다. 그러나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께 달려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 사실을 잊어버리고 세상 왕을 원했습니다.

Thanks Diary

삶의 적용과 물음

*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나라와 같이 세상 왕을 원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에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한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가 오늘 우리에게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우리 삶의 진정한 왕은 누구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묵상해 봅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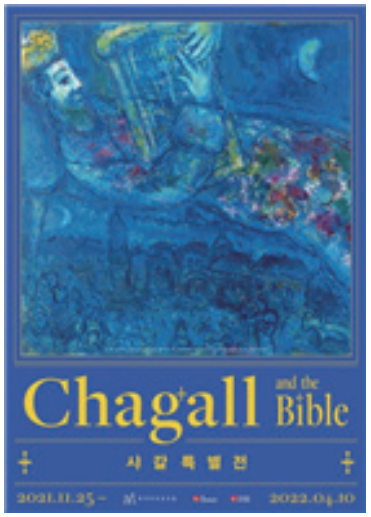
오늘의 기도

1. 하나님만 주인 삼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 기쁘신 일을 이루며 사는 하루가 되게 하소서.
2. 소년부와 함께하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부서가 되게 하소서.
3. 새로운 선생님과 친구들과 함께 1학기를 시작하는 교육부서의 모든 어린이와 학생들에게 만남의 복이 있게 하시고, 새학기에 잘 적응하게 하소서.

온 가족이 가볼 만한 전시회

샤갈, 성서를 말하다!

샤갈 특별전 〈Chagall and the Bible〉



겨울방학이 시작됐지만 나들이나 체험활동이 쉽지 않은 요즘, 아이들과 온 가족이 가볼 만한 전시회가 있어서 소개합니다. 바로 독창적인 소재와 화풍으로 유명한 샤갈의 회고전이자 샤갈에게 가장 중요한 예술 창조의 원천이었던 '성서'를 주제로 한 〈샤갈 특별전, Chagall and the Bible〉입니다.

이번 전시는 기존에 국내에서 여러 차례 진행된 샤갈전과 다르게 '성서'라는 단독 주제와 함께 유족이 소장하고 있는 〈강기슭에서의 부활〉, 〈푸른 다윗 왕〉 등 유화, 과슈를 포함한 19점의 명작과 4m 가량의 대형 태피스트리(색실을 짜 넣어 그림을 표현하는 직물 공예) 2점, 독일의 Kunstmuseum Pablo Picasso Münster 소장품 등 총 220여 점의 오리지널 작품이 공개되어 특별합니다.

'눈부신 색채의 대가'라는 수식어가 항상 따르는 마르크 샤갈은 러시아 태생이지만 프랑스에 정착한 화가입니다. 그는 다채로운 색감과 몽환적인 화풍을 바탕으로 삶과 사랑에 대한 메시지를 전파해 피카소, 마티스와 함께 20세기 가장 위대한 화가 중 한 명으로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렘브란트 이후 성서 이야기를 작품으로 가장 훌륭하게 드러낸 예술가라는 평을 받는 그는 성서를 주제로 한 작품을 그리는 시간 동안 전쟁과 학살로부터 고통받는 인류에 대한 사랑의 메시지를 바탕으로 그의 예술세계를 펼쳤다고 합니다. 샤갈의 성서 메시지는 희망적인 상상력과 색채를 통해 신비한 동화 같은 장면들로 표현되기 때문에 아이들과 온 가족이 함께 감상하기에도 좋을 것입니다.

이번 샤갈 특별전은 다음과 같은 4개의 테마로 구성돼 있습니다.

SEC 1. 샤갈의 모티프(Motif of Chagall)

1956년경에 제작된 석판화를 중심으로 샤갈이 대표적으로 사용했던 상징적인 요소인 연인, 동물, 악기 등의 주요 모티프를 통해 화가의 삶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SEC 2. 성서의 105가지 장면(105 scenes of Bible)

샤갈이 성서 테마로 그렸던 그림을 통해 성서적 메시지를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간 창조, 아담과 하와, 가인과 아벨, 요셉, 삼손과 들릴라 등의 105개 장면의 구약성서 이야기가 순차적으로 파노라마처럼 펼쳐집니다.

SEC 3. 성서적 메시지(Bible Message)

성서에 나오는 주요 사건과 인물을 모티프로 샤갈이 자신만의 해석을 담아 그린 작품들을 주제별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박힌 예수 그리스도, 이스라엘 민족을 이집트에서 탈출하도록 이끈 모세, 다윗과 골리앗, 지혜로운 솔로몬왕 등 유화, 과슈, 석판화, 대형 태피스트리까지 작품 매체의 경계를 넘어 모두 한자리에서 볼 수 있습니다.

SEC 4. 또 다른 빛을 향해(Towards Another Light)

샤갈의 다방면 행보와 마지막 열정을 탐구할 수 있는 마지막 섹션입니다. 시와 함께 그린 종교, 어머니 등 다양한 주제를 바탕으로 그려낸 아름다운 삽화들을 석판화 버전으로 공개합니다. 또한, 샤갈이 제작했던 포스터와 함께 샤갈이 마지막까지 불태웠던 예술혼을 기억에 남길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전시는 평소 유명한 샤갈 작품보다 성서에 관한 이야기들 중심의 구성이어서, 그림만 보는 것보다 오디오 가이드나 평일에 도슨트를 통해 설명을 들어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관람 마지막에는 판화 워크숍이 있어서 나만의 샤갈 아틀리에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초등 이하 아이를 위한 샤갈 특별전 공식 교육 프로그램 '키즈아틀리에'에서는 어린이 예술교육 전문가와 함께 쉽고 유익한 아트 스토리텔링, 작품감상, 전시 연계 표현활동, 올바른 관람예절 등을 익힐 수 있습니다.

방학을 맞이한 아이들과 온 가족 모두에게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 일시: ~ 2022년 4월 10일까지
* 시간: 오전 10시 ~ 20시(입장 마감 19시)
* 장소: 마이아트뮤지엄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18 섬유센터빌딩 B1]

성장하지 않는 믿음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 이벤트

• 윤 미 영 집사(소망-26)

2021년 가을이 저물어 갈 즈음 내 믿음 생활에 경종을 울리는 하나님의 채찍이 우리 가정에 찾아왔다. 결혼 후, 첫 선물인 첫 아이와의 70일간의 만남과 이별. 그 후에 찾아온 공황장애. 이 큰 두 사건으로 처절하게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으며 매달리던 나를 하나님은 만나 주셨고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 또한 뜨거웠었다. 하지만 잦은 병치레를 하는 두 자녀의 출산과 함께 내 모든 시선과 관심은 아이들에게 향했고, 모든 에너지를 소진하게 되다 보니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식어 버렸다. 그런 나에게 하나님은 사랑의 매를 들고 찾아오셨다.

백신접종 후, 더욱 심해진 두통으로 신경과를 찾았다가 MRI 촬영 결과, 뇌는 이상 없지만, 우연히 뇌 뼈의 이상소견을 발견했다. 그동안 살면서 여러 번의 고난을 마주해 왔지만, 다발성골수종 혈액암 의심소견이라는 큰 병명 앞에서 나는 또 한 번 좌절의 시간과 마주하게 됐다. 고대구로병원에서 검사를 받고 결과를 기다려야 하는 15일 동안 내 앞에 벌어질 일들을 상상하면서 좌절하고 낙심하게 될 것 같았다. 하지만, 절망에 빠져 있을 수만 없었기 때문에 정신을 차리고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건 무엇일까 찾기 시작했고, 내가 할 수 있는 건 오직 하나, 기도에 집중하는 것임을 깨달으면서 14년 전 공황장애를 겪으면서 체험했던 강력한 중보기도의 힘을 떠올렸다. 그리고 인맥을 동원해서 기도의 동역자를 찾기 시작했다. 결혼 전 하나님을 소개해 준 믿음의 고향 자매들, 내가 섬기고 있는 유치부, 그리고 소속 교구 목장 소망26가족들에게 기도 요청을 했다.

그렇게 여기저기 기도를 부탁한 뒤에도 여전히 불안한 마음은 있었지만, 기도의 군대를 얻은 것 같아 너무나 든든했다. 이 정도로도 부족하다는 생각에 기도 부탁할 분들을 더 찾고자 휴대폰 연락처를 검색하고 있을 때, 어디선가 조용한 음성이 들려왔다. '미영아, 이제 그만해, 나는 네가 필요하단다.' 그 음성을 듣고 처음에는 혹시 내면에서 속삭이는 내 말은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하고, 다시 폰에 있는 연락처를 찾기 시작했다. 그런데, 정말 이번에도 똑같은 음성이 들려왔다. '미영아, 이제 그만해, 나는 네가 필요하단다.' 두 번째 속삭임을 듣고서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음성이란 걸 알 수 있었다. 예전에 처음으로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의 그 음성과 똑같은 하나님의 음성…. 뺨을 크게 한 대 맞은 듯 정신이 번쩍 들면서 나는 바로 무릎을 꿇고 울면서 회개의 기도를 올려 드렸다.

그리고 하나하나 지나간 믿음의 시간이 떠올랐다. 그 뜨거웠던 하나님과의 첫 만남은 어디론가 사라지고 하나도 변하지 않은 믿음의 자세, 골방 신앙에서 벗어나지 못한 믿음의 형태, 코로나를 핑계로 올바르게 드리지 못한 예배, 자유라는 이름으로 누렸던 게으름 등. 나름대로 집에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읽는 시간을 가졌기에 '이만하면 됐지'라는 내 자만과 교만에 하나님께서 경종을 울리시는 것이라는 것을 울며 기도하면서 깊이 깨달았다.

지금 뒤돌아 보면, 하나님은 그동안 초신자의 믿음에서 성장하지 못하고 있는 내 믿음이 좀 더 자라길 바라시고 나에게 계속해서 신호를 보내오셨지만, 난 그 신호들을 예감하면서도 무시하고 지나쳐 버렸었다. 그런 나를 더는 참지 못하시고 이번 일을 통해 하나님을 간절히 찾지 않고서는 해결되지 않는 큰 숙제로 나를 찾아오셨다.

감사하게도 검사 결과는 다발성골수종 혈액암이 아니었다. 이 기쁜 소식을 듣게 됨을 감사하며, 가장 어려운 마음 가운데 있을 때 안타까운 마음으로 중보기도를 해주신 많은 분께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다. 이번 일을 계기로, 정말 이제는 변화될 때임을 인식하고, 믿음 성장을 위해

우리 가정에서 실천할 수 있는 것을 하나씩 찾아 실천하기로 했다.

첫 번째, 예배의 회복 - 코로나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해야 하는데, 코로나를 더 두려워하며 온라인으로만 드렸던 예배의 회복을 위해 남편과 함께 교회 가서 예배드리기 시작(지금은 내가 백신 1차 후유증으로 미접종자로 분류되어 혹시나 교회에 누가 될까 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있다).

두 번째, 가정예배 - 의지만 있었다면 충분히 드릴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나약한 의지로 미루고 미루다 지금까지 못해 왔었다.

세 번째, 매일묵상 - 말씀 묵상은 영상으로 해왔었는데, **[매일묵상]**으로 더 깊이 있게 하나님 말씀을 매일 먹고 있다.

그렇게 우리 가정은 2021년 11월 중순부터 지금까지 매주 가정예배를 드리고, **[매일묵상]**으로 말씀을 먹고 삶에 적용하고,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매일묵상]** 12월 말씀 중에 삶 속에서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말씀대로 행하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많은 사람을 품고 사랑하는 것이라는 본문 말씀을 가슴에 깊이 새기며 오늘도 다시 한 번 내 삶에 적용하고 실천하기 위해 노력해 보려고 한다. 세월이 흘러가면서 누구나 나이가 들고 삶의 깊이가 깊어지듯, 복음 받은 사람이라면 복음 받은 시간에 비례해 믿음 생활도 무르익어 가는 신앙인의 자세가 필요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본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만약 이번에 이런 이벤트가 없었더라면, 무지한 저는 또 기존의 믿음생활에
안주하면서 여전히 변화되지 않은 모습으로 하나님을 안타깝게 했을지 모릅니다.
하나님, 때론 고난으로 우리를 찾아오시지만, 그 고난으로 인해
우리를 더 성숙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한 해 동안 가정예배를 드리며

• 배 수 호(고등부 3학년)

2021년을 시작하며 **[매일묵상]** 책을 폈을 때 가정예배를 하는 공간을 볼 수 있었습니다. 찬양과 말씀으로 시작하면서 가족 구성원 서로의 생각을 나누고 함께하는 시간을 갖기에 최고의 구성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사실 가정예배를 하기에 앞서 두려움이 조금 있었습니다. 저는 당시 축구선수로서 훈련과 공부를 병행하고 있었고, 동생은 기숙사에 다녔으며, 다른 가족들 또한 각자의 일정이 있었기에 서로 시간을 맞추기가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면 참 쓸데없는 걱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인지 일주일에 어느 날은 꼭 시간을 맞춰 가정예배를 드렸습니다. 가정예배를 드리기 전에는 다른 일에 쫓기며 여러 고민이 있어도 예배를 드리고 나서는 마음이 안정되었고 가족들과 함께 예배를 드렸다는 생각에 기쁨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렇기에 참으로 감사한 한 해였습니다. 1년 동안 부족한 점이 많았지만, 가정예배를 다 드릴 수 있었고 그 덕에 어머니와 저는 대림절 촛불 점화에도 참여하는 은혜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가정예배 시간에는 교회 유튜브에서 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께서 인도해 주시는 영상을 참고하거나 우리 가정이 함께 말씀 나누기를 읽고 질문하며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서로에게 말하고 설명하면서 깊이 있게 말씀을 묵상하고 느낄 수 있는 기회가 됐던 것 같습니다. 가정예배 후반부를 보면 '실천하기' 부분이 있습니다. 1년을 되돌아보며 기억에 남는 활동이 몇

가지 있는데 그중 두 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역할극 활동입니다. 사도행전 3장 말씀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다가 못 걷는 사람을 보고 고쳐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를 역할극으로 진행하면서 가족과 함께 웃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가족과 좋아하는 찬양을 공유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생각해 보면 항상 제가 좋아하는 찬양을 가족들에게 들어보라며 권하기만 했지, 가족들이 어떤 찬양을 좋아하고 즐겨 듣는지는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을 통해 서로 좋아하는 찬양을 듣고 불러 보면서 은혜로운 시간이 됐습니다.

이제 2022년이 되면서 가정예배와 관련해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아직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시는 아버지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022년에도 가정예배를 꾸준히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1년이라는 시간 동안 우리 가족을 가정예배로 이끌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매일묵상]** 책이 나오게 힘써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고척교회의 다양한 가정이 가정예배를 통한 기쁨과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달 '위드유 가정예배' 실천표 소감문

2022년도에도 가정예배를 계속 드리고 싶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교회에서 예배드리기가 힘들지만
가정에서라도 계속 드리고 싶습니다.

– 김하연(유년부)

2021년에는 가정예배를 드리지 못할 때도 있었는데
2022년에는 매일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 해를 잘 마무리 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 김태연(중등부)

2021년을 가정예배를 통해
감사로 예배하는 삶을 살도록 허락해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 김용갑·이숙진 집사(사랑–36)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가정으로
지금까지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주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 정애희 권사(사랑–39)

* 그 외에 실천표를 제출하신 분들입니다.

김경동, 김지혜 집사, 김시우, 김시온(기쁨–17)

* 모든 성도가 함께 가정예배를 실천합시다.
1인 가족이나 부부도 [매일묵상]의 '위드유 가정예배'를 통해
예배드리고 실천표를 꼭 제출해 주세요.

예배부 섬김으로 주신 은혜

• 예배부 운영팀장 김 영 환 안수집사(사랑-15)

1973년 2월 제가 초등학교도 입학하기 전, 오돌오돌 떨면서 꽁꽁 얼어붙은 손을 호호 불어가며 발을 동동거리면서 다니기 시작한 우리 고척교회!

어머니를 따라 처음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지만 지금 생각하면 무슨 생각으로 왜 다녔는지도 잘 몰랐던 시절이었습니다. 중고등부 때도 열심히 봉사한다고 했지만, 예배 전 친구들을 맞이하는 예배 안내 섬김은 가볍게 생각했던 모습을 회상합니다. 그때를 돌이켜보면, 어린 시절 예배당 문 앞에서 반갑게 맞아준 선생님들과 친구들이 친근하고 고마웠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리고 성전 현관이나 입구에서 장로님이나 권사님, 집사님들의 섬김이 참 반가웠으며 따뜻했음을 기억합니다. 지금의 예배부 사역을 하기 전까지 수십 년 동안 교회에서 여러 가지 사역으로 섬겼고, 심지어 항존직으로 안수받은 지 20년 가까이 섬김의 사역을 해왔지만, 예배 안내는 생각지도 못한 사역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예배부를 섬기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또 다른 은혜의 자리로 부르셨음을 알게 하셨습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그 누구보다도 가장 먼저 예배의 자리로 향하시는 원로장로님, 지방으로 이사하셔서 한 시간 예배드리기 위해 왕복 다섯 시간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은퇴 권사님. 특히, 코로나19로 교회 출석도 부담이 되는 시기임에도 상황이 허락하는 대로 똘망똘망한 자녀를 유모차에 태우고 또 다른 팔로는 안고 손잡고 들어오는 다둥이 집사님 부부, 예배를 마쳐도 성전 구석에서 두 손을 모으고 간절히 눈물로 기도하시는 이름 모를 성도님들! 이렇게 귀한 분들을 영적인 눈으로 보게 하시어 은혜받게 하셨습니다.

예배부 팀장의 사역을 맡고 보니 예배만 드릴 때는 예민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부분도 보게 하셨습니다. 예배 안내위원들의 배치에서 복장, 태도 그리고 말씨 외에도 예배 시 성전 안의 적절한 온도에도 민감해야 했습니다. 이렇게 성전 안의 온도를 살피는 것을 시작으로 평소 강단과 절기 때마다 행해지는 예전, 외부 강사의 의전 등에 대한 기본적인 섬김은 물론이고, 음향, 조명, 청결, 기타 예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이나 교인 등을 살피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성전 곳곳에서 묵묵히 성실하게 자신의 자리에서 교회와 예배를 섬기시는 분들을 뵐 때, 저에게 조용히 다가오는 감동은 하나님을 향한 저만의 비밀스러운 교감이기에 온몸에 전율을 느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예배부를 섬기면서 나 자신이 얼마나 교만했는지 하나님은 알게 하셨습니다.

목이 곧았던 나를 모든 성도님에게 먼저 고개 숙이게 하신 하나님!
영적으로도 하나님께 모든 것 내려놓고 겸손히 다가오게 하신 하나님!

예배를 위한 섬김이라고 생각했던 예배부의 사역은 제가 위로를 받는 시간이요, 은혜의 시간이요, 감사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히려 내게 은혜 주시기 위한 나를 위한 섬김이었음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립니다.

선교지에서 온 편지 – 방글라데시

• 엄명희 선교사(방글라데시, 에버그린학교)

샬롬, 사랑하는 고척교회 모든 분께 인사드립니다. 방글라데시 집시마을에서 에버그린학교 사역을 하는 엄명희 선교사입니다.

2022년이 시작됐습니다. 그러나 새해에도 코로나19는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시국에 많은 분은 검사를 하고 negative(음성)라는 단어를 듣기 원하며 기다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지난 2년간 negative의 반대인 positive를 받기 위해 기도하며 기다렸습니다. 방글라데시 체류 비자를 받기 위해서 5년마다 갱신하는 외국인 신원조회를 통과해야 하는데 이때 서류 통과 절차상의 용어가 negative(거부), positive 승인입니다. 그래서 저는 통과의 긍정 결과인 positive를 기다린 것입니다. 코로나19로 방글라데시의 록다운과 담당 공무원의 확진으로 서류가 사라지고 정부 부처 간의 서류 전달의 오류 등 많은 우여곡절 끝에 2년 만에 positive 결과를 받고서야 비자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많은 분이 저게 마음고생을 했다고 하지만 저는 오히려 기다리는 2년간 주님과 함께했던 시간이 있었기에 감사합니다. 주님께 매달려 기도하며 회개했던 시간은 너무나도 소중하고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다시 방글라데시에서 사역할 수 있게 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2022년 시편(145:18)의 말씀으로 은혜 충만함을 갖고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방글라데시는 코로나19 상황 가운데 학교에 대해 오랫동안 대면 수업을 금지하다가 지난 9월 제한적 대면 수업을 허용했습니다. 그동안에는 교사들과 매주 모여 학생들과 집시(만따)마을을 위해 기도했고 학생들에게 학습지를 만들어 나눠주고 확인하며 학생 가정들을 위한 구호품, 마스크, 담요 등을 전달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한 2년의 시간은 제가 사역하고 있는 집시들의 생활을 점점 어렵게 했고 급기야 학교에 돌아오지 못하는 학생들도 생기게 됐습니다. 생계를 위해 취업을 하거나 결혼을 했기 때문입니다. 모두 4학년과 5학년 여학생들이었습니다. 방글라데시는 법적으로 아동 노동이 불법이며 조혼 또한 불법이지만 여전히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방글라데시 집시 자녀들을 위해 에버그린 학교를 세울 때 집시들조차도 아이들이 졸업이나 하겠냐며 우려했었습니다. 2015년 20명의 학생이 정식 입학을 했습니다. 에버그린학교가 집시 정착촌에 학교를 시작했지만, 집시들은 완전한 정착이 아닌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매년 여러 이유로 학생들이 떠나게 될 때마다 교사들과 다짐하며 주님 앞에 한 목소리로 학생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더 나누자고 기도했습니다. 그해 입학했던 20명 중 6명이 지난해 12월 1회로 졸업을 했습니다.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입니다. 지난해 초 9명으로 시작한 5학년(방글라데시 초등교육은 5년제) 중 전학(부모의 타 지역 취업), 취업, 결혼으로 3명은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졸업식 전날에는 성탄 행사도 했는데 졸업생들이 대표로 성탄 트리도 꾸미고 졸업식에는 졸업생들의 학부모도 초대해 함께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서프라이즈한 시간도 가졌습니다. 1회 졸업생들을 위한 위임목사님과의 페이스톡 시간이었습니다! 교사들에게도 비밀로 했기에 졸업식 날 학생, 교사, 학부모 모두 놀라며 목사님과의 화상 인사를 반가워했습니다. 위임목사님께서 재학생 졸업생들에게 축복해주시고 기도도 해주셨습니다. 정말 은혜로운 1회 졸업식이었습니다.

2022년 새해에도 20명의 유치원생이 입학했습니다. 어떤 상황이 펼쳐지든지 이 아이들은 예수님의 사랑을 받으며 자라날 아이들임을 믿습니다. 1회 졸업생들이 희망을 보여주었듯이 집시들에게도 함께하시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에버그린 학교 위에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고척교회 선교 동역에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하고 건강하시길 기도합니다.

교회소식

2월

교회

- M-12 • L-12 헌신예배 | 6일(주일)
- M-12 • L-12 상반기 개강 | 9일(수)
- 교육주일 | 13일(주일)

교회학교

- 하이성품스쿨 “감사”(8주) 시작 | 6일(주일)
- 청년공동체 스프링 신앙수련회 | 17-19일(목-토), 24-26일(목-토)
- 상반기 교사계속교육 ‘두드림’ | 20일(주일), 27일(주일)

예배시간 안내

GOCHEOK.PRESBYTERIAN.CHURCH

주일예배	1부		오전 7:00	은혜대예배당
	2부		오전 9:00	은혜대예배당
	3부		오전 11:00	은혜대예배당
주일찬양예배			오후 3:00	은혜대예배당
수요기도회	1부		오전 10:00	은혜대예배당
	2부		오후 7:30	은혜대예배당
새벽기도회	1부		오전 5:00	문화공간 채움(본관1층)
	2부		오전 6:00	문화공간 채움(본관1층)
금요성령집회			오후 8:30	은혜대예배당
L-12 리더모임		수요일	오전 11:00	교구별 장소
			오후 8:30	은혜대예배당
M-12 리더모임		수요일	오후 8:40	세미나실(본관5층)

상담실: 코로나19로 인해 당분간 e-메일 상담으로 운영합니다.
gocheok1004@gmail.com 로 메일 보내주세요.

영아부	주일 오전	11:00	비전센터 1층
유아 1, 2부	주일 오전	9:00, 11:00	꿈의교육관 1층
유치 1, 2부	주일 오전	9:00, 11:00	꿈의교육관 5층
유년 1, 2부(초1-3학년)	주일 오전	9:00, 11:00	꿈의교육관 지층
소년 1, 2부(초4-6학년)	주일 오전	9:00, 11:00	꿈의교육관 4층
중등부	주일 오전	11:00	꿈터 채플(본관B1층)
고등부	주일 오전	10:30	문화공간 채움(본관1층)
청년공동체	주일 오후	1:00	은혜대예배당
은빛시니어학교	목요일 오전	10:30	꿈터 채플(본관B1층)

* 모든 예배는 **[고척교회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송출됩니다.

memo.

memo.

'위드유' 가정예배 세우기 프로젝트

- 가정예배를 세우기 위해 격려하는 프로젝트입니다.
- **'가정예배 실천표'**를 체크하신 후 절취하여 수거함에 제출해 주세요.
  (가족 구성원별로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 매달 첫째 주일에 추첨하여 3가정에 **[사랑나눔 간식 쿠폰]**을 드립니다.

2월 가정예배 실천표

이 름	
소 속 (교구-목장/부서)	

주 간	**실 천 (O로 표시)**
첫째 주간	
둘째 주간	
셋째 주간	
넷째 주간	
[짧은 간증과 소감]	

절취선

여리고 성으로 들어가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어요. “6일 동안 매일 한 번씩 여리고 성 주위를 돌아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어요.

(여호수아 6장 1-20절)

에베소서 5장 8절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신명기 23장 24절

네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에는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되느니라
그러나 그릇에 담지는 말 것이요

시편 70편 5절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니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

마태복음 14장 14절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